

서울아산병원

VOL.664 2021. 11. 1



전세계 의사들에게 내시경초음파 술기 전수

내시경초음파를 전공하는 해외 의사들에게 서울 아산병원은 유명하다.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WISE)'을 만들어 2018년부터 세계 각국의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18개국 42명의 해외 의학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각종 시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우리 병원은 최근 미국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2년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소화기 분야 세계 8위에 오른 바 있다. 사진은 소화기내과 서동완·송태준 교수(왼쪽부터)가 서관 4층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내시경초음파 시술을 해외 의학자들에게 중계하며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담도암 항암제 치료법, 국제 가이드라인 제시

10 사랑시·행복구·동행동 AMC 서울에서 만난 은인

17 마음건강노트 의도적으로 휴식하기

20 문화·생활정보 이색 카페에서 보내는 특별한 시간

신선한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일식당 '나미'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초밥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식당 나미로 초대합니다.



위치 : 동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
※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 알탕(13,000원), 대구탕/지리(16,000원),
생대구탕/지리(21,000원),
참치회덮밥(16,000원), 특모듬초밥(31,000원)
반찬 판매 : 민물장어구이(20,000원), 활전복장(9,000원),
새우장(9,000원), 연어장(8,000원),
공치구이(6,500원), 계란말이(4,000원),
양념다데기(10,000원), 초고추장(5,000원)
※ 1일 전 예약판매로 운영됩니다.

신규 판매 : '천 개의 잎사귀로 피어난' 밀퐁유나베(21,000원)
문의 : 02-3010-6181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 | | |
|------------------------------|-----------------------|
| 당첨자 명단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 미니 마사지기 류지은(산부인과) |
| 연재정(중양내과) | 박진성(외과간호1팀) |
|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 달마이어 이용권 권미랑(진단검사의학팀) |
| 김치호(암병원간호1팀) | 김수연(암병원간호2팀 72유닛) |
|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 김아영(응급의학과) |
| 김선애(수술간호팀 J로젯) | 박해경(운영지원팀) |
| 김유민(진단검사의학팀) | 임수정(핵의학팀) |
| 박수진(수술간호팀) | |
| 이향숙(응급간호팀) | |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1년 11월 15일(월)
발표 제666호(2021년 12월 1일 발간)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직원 홈트' 미션이 10월 25일 아산넷에 공개됐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단계별 운동 영상이 앞으로 6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된다. 미션 참가자 중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운동을 수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도 예정돼 있다. 사진은 1단계 상체 운동 기본편 영상에서 운동법을 시연 중인 직원들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 해외 의학자들에게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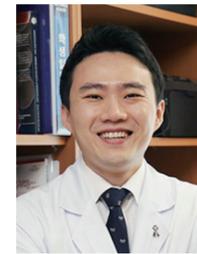
2019년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WISE)에 참가한 해외 의학자들이 우리 병원 동물 실험실에서 내시경초음파 시술을 배우고 있는 모습.

술 노하우를 전세계 의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세계내시경협회에 제안하여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WISE, WEO International School of EUS)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내시경초음파 시술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각 대륙에 걸쳐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진도 전세계 내시경초음파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현장교육을 시행했던 2018년에는 6명, 2019년에는 9명의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2020년 30명의 의사를 선발해 교육했

다. 올해 참가 의사 수는 42명이다. 서동완 교수는 “우리 병원은 전세계 해외 의학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 올해 참가 의사 수는 42명이다. 서동완 교수는 “우리 병원은 전세계 해외 의학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도암 항암제 치료법, 국제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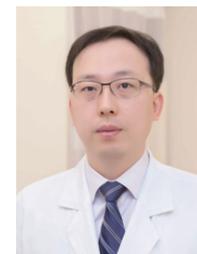
유창훈 부교수

담도암은 수술이 어려운 상태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항암제 치료 시 1년 생존율이 약 40%로 치료가 매우 어렵다. 많은 담도암 신약 임상 연구가 실패하다 보니 1차 항암제 치료 후 암이 진행된 경우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법조차 없었다. 최근 중앙내과 유창훈 부교수팀의 연구 성과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담도암 항암제 치료의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유 부교수팀은 1차 항암제 치료 후 암이 진행된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2차 치료에 리포좀이리노테칸 항암제를 병용한 결과, 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 반년 정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존 2차 치료는 다른 소화기암에서 사용한 플루오로우라실 항암제를 단독 투여했다.

연구팀은 먼저 담도암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책장암 치료에 사용되어 온 리포좀이리노테칸 항암제가 담도암 치료에

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밝히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1차 항암제 치료 후 암이 진행된 담도암 환자 174명을 플루오로우라실 단독요법 집단과 플루오로우라실-리포좀이리노테칸 병용요법으로 나눠 치료 결과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단독요법 집단의 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 1.4개월, 병용요법 집단은 약 7.1개월로 반년 정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병용요법 집단에서 암이 현저히 늦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삶의 질 측정 지표 설문 결과에서도 두 집단 간 환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훈 부교수는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의미 있는 담도암 치료 성적 향상을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담도암 2차 항암제 치료의 국제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향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란셋 온콜로지」(IF=41.316)에 최근 게재됐다.

고지혈증 치료제, 전립선암 재발 억제 효과 없어



정인갑 교수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면 암 재발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저용량 스타틴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비뇨의학과 정인갑 교수팀은 2012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 중 재발 위험이 높은 3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83명에게는 스타틴 계열의 아토르바스타틴 20mg을, 나머지 181명에게는 위약을 1년 동안 매일 복용하게 한 후 암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 검사로 전립선암 재발 여부를 판단했다. 수술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환자들의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수치를 검사한 결과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복용 환자 183명 중 30명(16.4%), 위약 복용 환자 181명 중 29명(16.0%)에게서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했다. 이후 최대 5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복용 환자 중 37.7%(69명), 위약 복용 환자 중 35.4%(64명)에게서 생화학적 재발이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인갑 교수는 “이번 연구로 일반적인 고지혈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정도의 저용량 스타틴 계열 약물은 전립선암 재발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연관성에 대해 많은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만큼 어떠한 환자군에서, 어느 정도로 고용량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암연구협회(AACR)에서 발간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임상 암 연구」에 최근 게재됐다.

원내 TV 채널 통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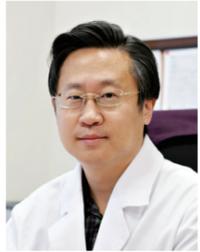


동관 1층 로비 대기공간에서 TV를 보고 있는 환자·보호자들의 모습.

메디컬콘텐츠센터가 원내 TV 채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진료과·검사실 등 진료영역별 채널을 신설해 장소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내 TV 채널은 총 6개로 ▲채널 편성 안내 ▲폐질환 환자 교육 ▲암 환자 교육 ▲산모 교육 및 모유수유 안내 ▲외래환자 대상 홍보, 안내, 교육 ▲입원환자 공통 교육이다. 메디컬콘텐츠센터는 기존 채널을 진료영역별 TV 채널에 통합시켜 운영하고 원내 TV 채널 수를 2022년까지 총 50개로 늘릴 예정이다. TV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독립 채널을 운영하고 해당 공간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환자·보호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통합 관리한다. 이로써 콘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환자·보호자가 체감하는 진료 대기시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병원발전기금 과제로 선정돼 진행됐다.

다발골수종 조기진단 가능성 확인



김현식 부교수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유래한 악성 형질세포가 증식하여 나타나는 B세포 혈액암이다. 재발이 쉽고 사망률이 높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법 개발이 시급하다. 의생명과학교실 김현식 부교수팀은 다양한 플랫폼의 이중항체를 제작하고 자연살해(NK)세포의 활성화에 최적화

된 이중항체 유효물질을 도출해 다발골수종 검체에서 조기진단 및 예후예측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발골수종과 면역결핍 질환인 반성유전성 림프계 증식증후군 환자 샘플을 임상예후에 따라 분류하고 혈액에서 직접적으로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측정, 임상예후와 관계 분석을 통해 개발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 검사방법으로 진단 가능성을 확인했다.

간편한 대량분석 활성측정 방법 개발을 위해 이중항체기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유세포분석기와 효소면역분석을 이용해 측정했다. 추후 상용화를 위해 이중항체기반의 다양한 반응조건에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활성도 검사방법을 확립했다.

연구팀이 확인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 검사법은 표적세포가 필요 없는 이중항체기반 질환 진단 기술이다.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이중항체를 이용해 소량의 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의 세포살해활성과 인터페론 감마(IFN- γ) 생성을 동시에 유도, 직접적인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중항체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2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해 결합할 수 있게 개량한 것으로 단일 항체 대비 높은 활성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 최근호에 게재됐다.

섬모세포 운동성 측정 신기술 개발



김준기 조교수

호흡 기도의 표면에는 평균 7 μ m(마이크로미터) 길이의 섬모들이 돋아 있다. 이 섬모들은 기도 속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모세포의 운동성을 살펴보면 호흡기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 중앙대 전자기공학부 최우준 교수,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연구진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호흡 기도 섬모세포의 운동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모션 콘트라스트 영상법과 이미지 상관법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섬모세포 운동횟수 자동측정 기술을 개발했다.

모션 콘트라스트 영상법을 이용하면 고속 카메라로 획득한 원본 영상에서 섬모운동에 따른 신호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개별 섬모세포의 형상과 위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미지 상관법은 개별 섬모세포가 포함된 영역에서 프레임 별로 신호패턴의 유사성을 수치화해 개별 섬모의 운동횟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팀은 최종적으로 매트랩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 내에 위치한 섬모들의 운동횟수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영상화·정량화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완성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준기 조교수는 “호흡 기도 섬모운동 측정기술은 공학과 기초의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디지털 이미지 처리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초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에 바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임상 적용을 위해 세포 촬영이 가능한 고해상도 내시경과 임상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툴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영상연구 분야 권위지인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트랜잭션 온 메디컬 이미징」에 최근 게재됐다.

캄보디아 환자 초청진료



심장내과 남기병 교수와 이 폴라 씨 부부(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 폴라(여, 35세) 씨는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 직원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함께 봉사활동을 한 인연이 있다. 이 폴라 씨가 최근 우리 병원의 초청으로 수술을 받은 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폴라 씨는 2018년 심실에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해 심장이 병적으로 빨리 뛰는 심실빈맥을 앓기 시작했다. 이후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추천을 받아 우리 병원의 초청진료 대상자로 선정된 이 폴라 씨는 지난 9월 29일 심장내과 남기병 교수에게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고객만족도 9년 연속 1위

우리 병원이 2021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병원 부문 1위에 선정돼 9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이다. 올해 조사는 총 112개 산업군 354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소비자 1만 7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올해 우리 병원이 받은 종합 만족도 점수는 83.5점으로 2019년 79.1점, 2020년 81.7점에 이어 매년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의 질(수준) ▲의료진의 신뢰도 ▲일반직원의 응대 태도 ▲의료진의 관심과 응대 ▲의료진의 설명력 ▲편의시설 만족도 ▲병원시설에 대한 안내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난대비 모의훈련



10월 28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난관리 도상훈련에서 보안관리팀 이동우 비상계획관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재난 대응 종합 모의훈련이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직원 90여 명과 소방관 2명이 참여했다.

첫날 오전에는 재난상황 도면을 공유해 관련 부서 담당자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재난관리 도상훈련이 진행됐다. 다음 날 오전에는 ▲초기/대피 지원반 소집 훈련이, 오후에는 ▲124병동 화재 진압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재 발생 시 취약 지역이 없도록 감염 의심 환자 분류, 스피드 게이트와 현관 개방 등 모의훈련도 진행됐다.

정보의학과·빅데이터연구센터 심포지엄



빅데이터연구센터 이계화 담당교수가 'RWD 기반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보의학과·빅데이터연구센터 심포지엄이 10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의료기관,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 ▲2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페스티벌 ▲3부에서는 클라우드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빅데이터연구센터 오지선 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약물감시센터 심포지엄



약물이상반응 우수보고자들이 표창장을 수여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제제도 및 사례 소개 ▲약물 알레르기 라벨 떼기 ▲트라마돌 등 진통제 사용과 부작용 ▲스테로이드 사용과 부작용 등 총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약물이상반응을 적극적으로 보고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또한 약물감시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약물안전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우수 부서·직원

부서 : 암병원간호2팀 75유닛, 외래간호팀 외래4유닛, 영상의학팀 직원 : 이유진(외과간호2팀), 윤현석(내과), 배준현(내과), 박미경(외래간호팀), 허민주(응급간호팀), 배홍준(응급의학과), 이누리(약제팀), 김성희(영상의학팀 영상간호2유닛)

약물감시센터 심포지엄이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원내·외 의료진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약물감시센터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강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기계환기법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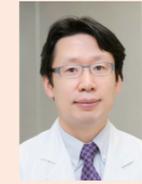
제28회 아산기계환기법 워크숍이 10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기계환기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부전 ▲2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호흡기 관리 ▲3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호흡 기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홍상범 중환자실장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의학적 도전들 중 호흡 치료 분야는 가장 비중이 큰 분야다. 이번 워크숍이 코로나19 호흡부전의 치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원격 호흡 치료의 기술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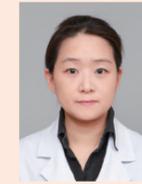
강덕현 교수 학술상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21년 학술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증의 예방적 조기 수술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하는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의한 대규모 환자군의 분류 : 재분류된 사례의 빈도 및 특성'이라는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받았고, 구현정 임상강사는 '시약 로트 변경이 내부정도관리 데이터를 이용한 하향식 측정 불확도 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육희정 임상강사는 '보체의존세포독성을 이용한 ABO 항체 측정'이라는 주제로 각각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장원경 교수 한마음학술상



소아청소년과 장원경 교수가 10월 21일 열린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마음학술상을 받았다. 장 교수는 지난 5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소아청소년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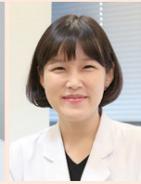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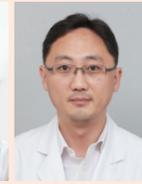
신성 부교수, 임성준 임상강사 최우수초록상 은상



신·취장이식외과 신성 부교수, 임성준 임상강사가 10월 9일 열린 대한이식학회 주최 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1에서 최우수초록상 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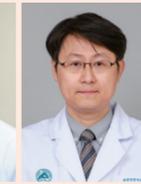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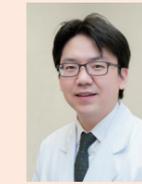
신성 부교수 임성준 임상강사 신 부교수와 임 임상강사는 '신장 부피 CT 분석을 통한 신장이식 기증자의 수술 후 신기능 예측 모델'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김홍규·이우제 교수 공로상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 내분비내과 이우제 교수가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지「장과 간」발전 세미나에서 다빈도 피인용 논문 저자로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논문은 '연령에 따른 골격근량 감소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강의학과 이민정 조교수가 1저자로 참여했다.

김범준·김경곤 부교수 융합연구상



내분비내과 김범준 부교수, 융합의학과 김경곤 부교수가 10월 30일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에서 융합연구상을 받았다. 김범준·김경곤 부교수는 '단백질 체하를 활용한 노화 바이오마커 및 항노화 치료 표적 발굴'이라는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이 최근 열린 제62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조영욱

이창환 부교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위촉



의생명과학교실 이창환 부교수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분자세포의학 분야 전문위원으로 최근 선정됐다. 이 부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학문적 자문을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간안내



프셉마음 - 마취회복실편

지은이 : 김명희 가 격 : 30,000원
페이지 : 392쪽 펴낸곳 : 드림널스
발행일 : 2021년 9월 23일

수술간호팀 신관마취회복유닛 김명희 차장이 신규 간호사를 위한 마취간호 안내서인 「프셉마음 - 마취회복실편」을 최근 펴냈다. 이 책은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비·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중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담았다. 책의 주요 내용은 ▲마취회복간호사, 기초 다지기 ▲마취간호 이해하기 ▲Case로 보는 마취 분야별 간호 ▲마취 후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간호 ▲통증 간호로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의생명과학교실 최순철 부교수



기관 발생과 예정된 세포사멸

사람의 손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돼 있지만 임신 초기 태아의 손은 방어리장 갑을 낀 것처럼 주걱모양을 하고 있다. 개구리 유생 시기에 올챙이는 긴 꼬리를 가지나 성체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사라진다.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고 성인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자궁, 난관으로 발달하는 물러관이라 불리는 생식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 열거된 이 평범한 사실들은 무관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세포 현상을 수반한다. 그것은 예정된 운명대로 세포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정된 세포사멸(programmed cell death)이라고 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로 삶을 시작하여 발달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의 개체가 된다. 이를 위해 세포들이 분열하여 번식하고 각자 특이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직관과는 다르게 초기 발생 시기와 성체 조직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만큼 세포들이 죽으며,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일어난다. 주걱모양을 가진 태아의 손은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사멸하여 없어짐으로써 온전한 모양을 갖게 된다. 올챙이의 꼬리는 성체가 되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에 세포사멸을 통해 없어지고, 남성에서는 자궁, 난관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련 생식 조직은 성장 과정에서 사라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아가 갖고 있던 난모 세포의 80%는 세포사멸을 통해 도태하고 초기 발생 중 생성된 신경세포의 절반도 사멸한다. 면역계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위험한 면역세포는 사멸을 통해 제거된다. 즉 세포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온전한 형태와 균형 잡힌 세포의 수를 가진 완전한 개체로 태어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된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예는 '기관 형성과 세포의 죽음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한 공로로 미국 버클리 분자과학연구소의 시드니 브레너,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존 설스턴, 미국 MIT의 로버트 호비츠 3명에게 돌아갔다. 1960년대 분자생물학 연구의 첨단에 있던 브레너는 동물의 행동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쁜꼬마선충'이라는 모델 동물을 발굴하여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다세포동물로서 3.5일 만에 알에서 성체로 성장하고 완전히 자랐

을 때 그 크기가 1mm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기생충은 중요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1960년대 말 브레너 연구단에 합류한 설스턴은 수년에 걸친 현미경 관찰로 이 동물을 구성하는 959개 세포들의 계보를 완벽하게 그리는 데 성공했다. "이 작업은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매우 가치 있고 매력적인 것이었다"라고 그가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힘겨운 일의 대가로 발생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정된 세포사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선충의 유생 시기에는 1,090개의 세포가 생성되지만 성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131개의 세포가 사멸한다. 설스턴과 함께 세포 계보 작성에 기여했던 호비츠는 1980년대 후속 연구를 통해 ced-3, ced-4, ced-9와 같은 새로운 유전자를 발굴하여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분자 네트워크를 규명했다. 놀라운 점은 이 작은 기생충에서 발견된 세포사멸 기전과 동일한 조절 방식이 사람에서도 발견됐던 것이다.

호비츠는 세포사멸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가장 큰 전율을 느꼈던 순간은 ced-9 유전자가 암 발생과 관련된 Bcl-2라는 사람 유전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라고 말한다. 한낱 작은 생물체에서 발견된 다분히 추상적인 분자 기전이 인간 생물학, 나아가 인간 질병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분되는 요소였던 것이다. 정교하게 통제된 세포사멸이 완전한 생명체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만큼 그 조절을 실패하면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암과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할 세포사멸이 지나치게 억제됨으로써 야기되는 결과이고 세포사멸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이 초래된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지금의 많은 연구자들은 세포사멸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하여 퇴행성 신경계질환 등을 치료하고자 한다. 반대로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전략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2002년 노벨상 수상은 브레너에게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DNA 이중나선 구조가 규명된 이후 브레너는 트리플렛 코드 가설을 통해 DNA 유전정보가 단백질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 분자생물학 초기 연구의 핵심적인 선구자다. 설스턴은 국제컨소시엄으로 추진됐던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영국측 책임자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인간유전체 정보가 특정 기업 혹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 또한 노벨상 수상자에 걸맞은 행적으로 보이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p>시드니 브레너 (1927~2019) 영국의 생물학자·유전학자</p>  <p>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분자생물학연구소장과 분자유전학연구소장,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분자과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p>	<p>로버트 호비츠 (1947~) 미국의 생물학자·유전학자</p>  <p>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수학, 경제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워드휴즈 의료 연구소, 맥거번 연구소, 미국 국립 인간게놈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p>	<p>존 설스턴 (1942~2018) 영국의 유전학자</p>  <p>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솔크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생거센터 소장,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과학윤리위원회 공동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p>
---	---	---

※ 사진 출처 : 노벨상 홈페이지

※ '노벨상 들여다보기' 코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인간 생리의 원리를 밝히거나 의학적 진보를 이룩한 여러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 연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에서 만난 은인

“항심 눈이 또 빨개요.” 동료의 이야기에 순만(남, 65세) 씨는 거울을 봤다. 충혈된 눈동자는 물론 눈 주변에 열린 멍이 들어 있었다. 점점 눈이 붓고 가렵다 못해 따가웠다. 포도막염이 또 문제였다. 2000년부터 동네 안과에 다녔으니 15년째였다. “만날 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요. 이러다 예쁜 눈 다 버리겠네!” “공단 공기가 나빠서 그런가, 병원에선 쉬면 낫는 병이라던데...” 동료들의 성화에 하루 휴가를 냈다.

별것 아닌 별것

몇십 년 만의 서울행이었다. 순만 씨는 어느 때처럼 외출 전 냉장고 앞에 멈춰 섰다. 정확히는 오랜 생활 흔적이 스며든 전국 지도 앞이었다. 여천 공단에서 컨테이너 지게차 운전을 30여 년 하면서 묵힌 꿈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퇴직만 하면 컨테이너 대신 아내를 태우고 전국을 뽕뽕 달려 보리라. 그 생각만 하면 신이 나곤 했다. “어찌다 병원 간다고 서울을 다 가보네.”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하니 세상에 아픈 사람이 전부 와있는 듯했다. 의사는 아직 특이점이 크지 않으니 지켜보자고 했다. 약 처방과 함께 다음 진료 일정을 받았지만 순만 씨는 가볍게 무시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었네~’ 의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여파는 1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고 안경을 껴도 잘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노인인 줄 알았는데 안압이 40mmHg까지 오르면서 핏줄이 터졌다. 부랴부랴 서울아산병원으로 달려왔다. 포도막염은 그 사이에 녹내장으로 번져 있었다. 수술을 진행하면서 각막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식이 최선인가요?

“죽은 사람의 눈을 제 눈에 이식한다고요?” 처음 만난 안과 이훈 부교수가 각막 이식을 이야기했을 때 화들짝 놀랐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줄도 몰랐지만 이식이려면 거부감부터 들었다. 기증자가 나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다. “각막은 기다릴 것 없이 빨리 이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교수는 이식에 관한 편견과 오해를 이미 예상한 듯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처음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병을 키우지도 않았을 텐데...’ 흐릿한 시야에도 아내와 딸의 눈물은 잘 보였다. 가족이 우는 것만큼, 가정이 아픈 것만큼 서로에게 슬픈 일이 없었다. 수술 하느라 마음고생을 할 바엔 조금 불편하게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며칠을 심사숙고했다. 마음을 먼저 추스른 아내가 말했다. “하고 후회하나 안 하고 후회하나 똑같으면 해봐야죠.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고 병원이라고 하던데 어련히 잘해줄까!”

천국과 지옥 사이

2019년 12월 수술을 위해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입원 절차가 복잡했다. 병동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었다. 피곤과 긴장이 몰려왔다. “아버님!” 뜬금없이 이 부교수가 나타났다. “교수님이 어떻게 이 늦은 시간까지 계세요?” 순만 씨는 놀라면서도 ‘내 편’의 등장에 든든했다. 그렇다고 이 부교수가 늘 다정한 건 아니었다. 이식 후 병실을 나서는데 “3일 동안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한다니까 벌써 나오

시면 어떡해요?” 이 부교수의 매서운 목소리가 병동에 울렸다. 크리스마스에도, 연말에도 어김없이 병동에 나타났다. ‘젊은 양반이 보통이 아니네~.’ 수술 후 시력은 0.9까지 올라왔고 뿌옇던 것도 모두 걷혔다. 눈동자 모양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눈 걱정 없이 보낸 몇 개월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한껏 들뜬 순만 씨는 “운동이나 영양 관리를 잘해주시고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땐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라는 이 부교수의 조언을 까맣게 잊었다. 덜컥 한쪽 눈이 안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병원행을 미뤘다. 왜곡된 시야 때문에 침대 모서리에 눈을 부딪쳐 통통 붓기도 하고, 혼자 발을 집질리기도 했다. 참다못해 병원에 오는 길엔 버스에서 두 번이나 나뉘곶이었다. 다리가 덜덜 떨려 한 발짝 내딛기도 두려웠다. ‘이러다 죽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마음

역시나 이식 거부 반응 때문이었다. 이 부교수는 왜 진작 오지 않았냐며 호통치면서도 안타까워했다. 설마 하며 병원 오기를 차일피일 미룬 게 화근이었다. 입원해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온종일 겨겨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고통이 심해지자 재이식을 결정했다. 처음 수술할 때보다 긴장감이 더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날이었다. 이식 후 손바닥이 두 눈에 보였을 때 순만 씨는 웃으며 울었다. 당연한 것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 때문이었다. “나는 지게차 운전 기술자인데 교수님은 사람 몸을 운전하는 전문가네요!” 이 부교수는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말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순만 씨는 새벽 6시면 기상해 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선 순만 씨의 노련한 운전 실력을 필요로 했다. 건강한 눈이 있어 다행이었다. 퇴근하면 아내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전국의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러다 눈이 조금 피곤했던 날, 이 부교수에게 질문을 보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밤 10시. 자려고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 부교수의 긴 설명이 담긴 문자였다. ‘우리 교수님 환자 보느라고 또 이 시간까지 바쁘셨나 보네!’ 순만 씨는 오늘도 눈이랑 잘 지냈다는 답 문자를 쓰다가 이내 지웠다. 교수님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 Storytelling Writer 흥누리

※ ‘인생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용혜원님의 시 「동행」의 한 구절입니다. 이곳은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랑시(市) 행복구(區) 동행동(洞) AMC 입니다. 이 곳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AMC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환자에게 더 가까이, 전문간호 20년

암병원간호1팀 문혜원 차장



“ 처음엔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잘 몰랐어요. 혼자 하나씩 부딪혀 가며 찾았습니다.”

배우고 경험하며

2000년 의료법상 전문간호사 명칭이 공식화되고 원내에 CNS 운영위원회가 발족했다. 호흡기내과 근무 5년차였던 2002년, 흉부외과 전문간호사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특수 분야의 업무를 하고 싶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전문간호사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흉부외과 병동에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호 역량을 기대했다. 1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일반 간호사로 이제껏 다룬 적 없던 엑스레이를 볼 줄 알아야 업무가 가능했다. 진료과에선 환자 교육자료 개발을 요청했다. 업무를 쪼개어 매 순간 집중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따졌다. 중간 역할에서 오는 피로감과 배우는 동시에 체계를 잡아야 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다.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신입 간호사를 대상으로 강의 중인 모습.



(왼쪽부터) 천미순 차장, 정주리 과장, 오유나 진료조교수, 문혜원 차장이 환자 치료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 담당 환자 10~30명에게 적절한 치료 지원과 전문 간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간호사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와의 오전 회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확인하고 알렸다. “식도 수술 후에 물을 드실 때 조금씩 사레 걸리는 양상을 보이세요.” “그럼 죽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어제 드시는 걸로 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바뀌는 환자의 양상을 진료과에서 참고했다. 회진이 끝나고 전공의,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와 따로 모여 오늘의 치료 계획을 공유했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병동에 입원했다. 수술 전 교육을 진행하며 수술에 문제될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복도에서 담당 환자와 마주치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가래는 잘 뱉고 있는지, 배액관과 호흡 상태는 어떤지 세세하게 물었다. “많이 아프시겠지만 운동은 꼭 해주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입원 환자에게 호흡 운동을 교육하고 있는 문혜원 차장(왼쪽).

“ 감정을 앞세운 환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전달하려고 해요.”

악연은 없다

지난해 암환자들에게 수술 지연 안내 전화를 돌릴 때였다. 한 식도암 환자의 자녀에게 거친 항의를 들었다. 민감한 일에 양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다. 그래도 그날은 무척 속이 상했다.

나중에 그 환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했다. 중증도가 높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았다. 서운한 마음은 제쳐 두었다. 같이 운동하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평가하고 보호자 훈련도 곁들였다. 2시간을 온전히 할애한 날도 있었다. 환자는 조금씩 회복했고 퇴원 결정이 나왔다. 환자 가족은 모든 간호사가 애써줘서 고맙다며 인사했다. “사실 예전에 수술이 지연됐을 때 제가 전화드렸었어요.” 조용히 꺼낸 이야기에 아들은 뭔가 기억난 듯 민망해했다. “저도 환자나 보호자가 되었을 때 의료진을 보는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전부 마음에 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환자분들께 최대한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배웅했다.

일하면서 배운 건 감정을 앞세울수록 빠르게 소진될 뿐이라는 점이다. 다른 의료진에게 불만이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적인 환자와 가족의 태도를 바꾸는 데 시간과 마음을 충분히 쏟는다. 보호자와 같이 울고, 환자의 회복을 내 일처럼 뿌듯하게 느끼고 싶다면 필요한 노력인 듯하다.

“ 2명이었던 전문간호사가 20년간 117명으로 늘었어요. 역할과 책임을 계속 고민해야죠.”

전문간호사 20주년

회복이 더딘 환자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온종일 불안해했다. “교수님도 굉장히 고민하고 계세요”라며 의료진이 공유한 이야기를 살짝 전했다. 그리고 영양사, 타과 의료진, 원무팀, 적정진료팀 등에 연락했다. 타 분야의 발전된 치료와 간호를 물으며 챙겨야 할 내용을 조언받았다. 그리고 처방과 검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후 3시, 시뮬레이션센터로 달려갔다. 신입 간호사 대상의 ‘흉부 영상 검사의 이해’ 강의를 예정해 있었다. 여러 차례 진행한 수업이지만 간호사들이 어렵지 않게 업무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강의 때마다 내용을 가다듬었다. 그 외에도 흉관 관리 간호와 신입 인턴 교육 등을 강의하는데 오랫동안 배우고 경험한 내용이 누군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한다.

전문간호사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병동 간호의 로딩과 진료과의 업무를 줄일 방안은 지속적인 숙제다. 원내 전문간호사 모임인 ACNSA의 콘퍼런스, 대표자 모임 등이 가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20년 전에는 혼자서 역할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든든한 전문간호사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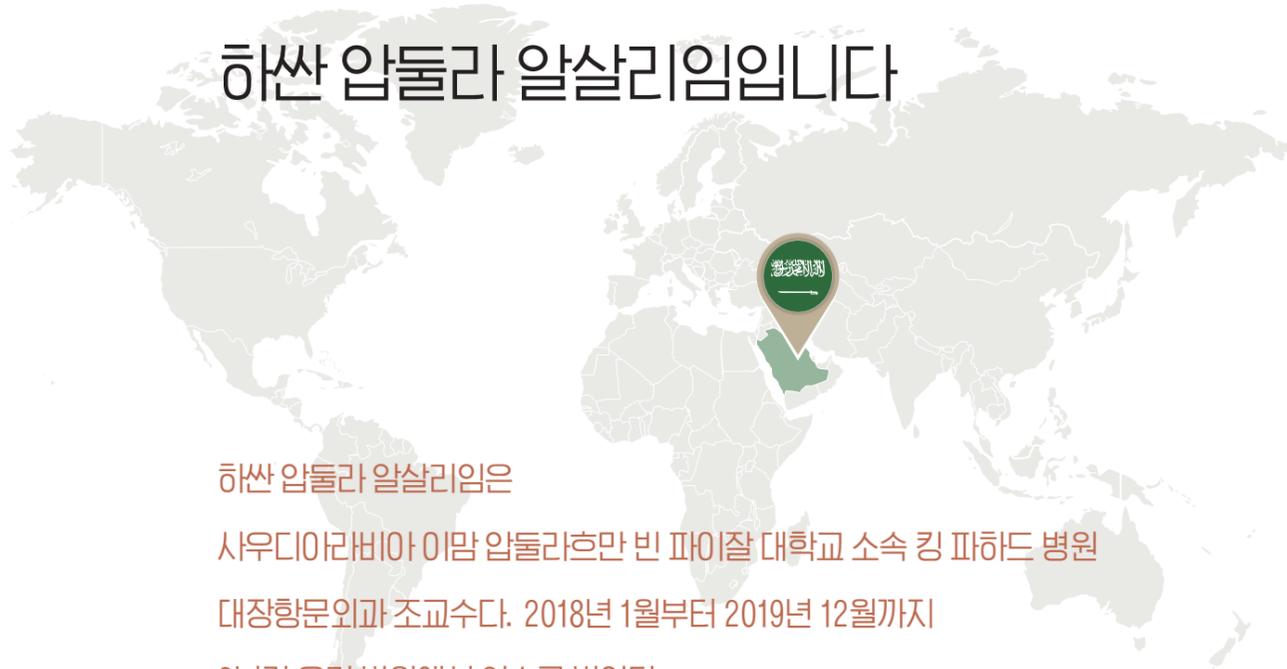


매월 전문간호사 대표자 모임에서 각 분과 대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한다.

● Storytelling Writer 흥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 · 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하산 압둘라 알살리입니다



하산 압둘라 알살리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맘 압둘라흐만 빈 파이잘 대학교 소속 킹 파하드 병원 대장항문외과 조교수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대장항문외과 김진천 자문교수였다.

일하고 있는 병원을 소개해달라

킹 파하드 병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코바르 시에 위치한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도 이곳 대장항문외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정교수로 계속 일하고 싶다.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아산병원은 규모가 훨씬 큰 대형병원이고 여러모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매일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여러 건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잘 갖춰진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무기록을 전산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AMIS 3.0도 인상 깊었다. 방대한 양의 환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시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이 무척 놀라웠다. 또한 로봇수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2019년 12월 해외의학자 연수 수료식에서 대장항문외과 김진천 자문교수(왼쪽)와 함께.

연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킹 파하드 병원으로 복귀한 이후 우반결장절제술, 좌반결장절제술, 전방절제술, 저위전방절제술, 원장미부낭종의 복강경 절제 등 많은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 모두 서울아산병원에서 직접 보고 배운 술기들이다. 로봇수술도 곧 우리 병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이곳 의료진과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서울국제종양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최고발표상을 받고 있는 하산 압둘라 알살리임(오른쪽).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년간 김진천 교수님께 연수를 받은 건 정말 큰 영광이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일한 대장항문외과 팀원들과 수술실 동료들 역시 내게 가족과 다름 없었다. 연수를 받는 동안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타지 생활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함께 일한 모든 동료들이 그렇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훌륭한 곳에서 계속 행복하게 일하며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 머지않은 날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



2019년 3월 대장항문외과 윤용식 부교수(오른쪽)와 함께 로봇수술을 마친 뒤.



2019년 12월 해외의학자 연수 수료식 기념촬영. 원 안이 하산 압둘라 알살리임.

※ 다양한 국적의 많은 해외의학자들이 고난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병원에 다녀갑니다. 'Miss U, AMC'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해외의학자들이 현지 병원에서 의학자로 생활하며 들려주는 연수 후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해외의학자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번역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이용 의료영상진단 연구의 임상검증



영상의학과 김동욱 조교수

영상의학과 김동욱 조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영상진단 연구들의 임상검증 설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연구로 'KSR-최다피인용 KJR 논문상'을 수상했다. 의료/의학 영상 분야 인공지능 연구의 임상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세계 최초로 제시하여 주목받은 연구이다. <편집실>

Q. 연구의 배경은? 인공지능의 진단 능력은 학습에 쓰인 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엄밀한 기준을 통해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이 없을 경우 다양한 임상환경에 실제로 적용시켰을 때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치료용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의료영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내린 진단 오류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세계에 출간된 모든 의료·의학영상분야 논문 약 2,700건을 PubMed, EMBASE 등 연구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하여 최종 516편의 유관 논문을 분석했다. 이중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 경우는 약 6%의 연구에 불과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논문들이 ▲임상진료 상황에 맞는지 ▲다기관 연구인지 ▲연구 대상이 전향적으로 수집되었는지 등 엄밀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임상진료 상황에 맞춘 경우는 전체 논문 중 단 1%였고, 세 가지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인공지능 연구가 환자 진료에 유용한 도구가 될 기

술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임상검증 측면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진단 영역에서의 부족한 점을 가까운 미래에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임상적용에 앞서서 윤리적이고 적절한 검증단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이 연구는 Web of Science 기준 79회, Google Scholar 기준 157회 피인용되며 연구자들에게 임상검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잘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통한 임상검증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란셋」, 「네이처」, 「영국의학저널」, 「라디올로지」 등 저명 저널에서는 의료영상 연구 관련 가이드라인(예를 들면 SPIRIT-AI, STARD-AI, CLAIM)을 정하여 외부 데이터 임상검증 등 인공지능 연구의 적절한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개발 단계의 집중에서 벗어나 개발된 인공지능이 실제 임상과정에서 적용됐을 때 기존의 진료를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후속 연구로는 최근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서 임상검증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임상적용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의도적으로 휴식하기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업무 중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계에 서툰 사람도 이때 일단 '전원 껐다 다시 켜기'를 합니다. 큰 고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든 해야 할 일이 늘 쌓여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씩 전원 버튼을 껐 주는 것은 우리를 충전시켜 꽤 괜찮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갈망하면서도 막상 시간이 남아돌면 불안해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바쁘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식이 되어버려서인지 할 일 없는 상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오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살지 않는다' '게으르다'로 연결시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해야 할 일들로 시간표를 가득 채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결국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잘 쉬는 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은지, 효과적이지 잘 모르겠다면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해먼드가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휴식 테스트¹⁾의 결과를 참고해봅시다. 참여자들이 가장 휴식이 된다고 느끼는 상위 10개 활동은 책 읽기,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혼자 있기, 음악 듣기, 아무것도 안 하기, 산책, 목욕, 잡념, 동영상 시청, 명상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혼자서 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휴식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들

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업무 중 효과적인 방식의 휴식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업무를 모두 끝내고 몰아서 쉬는 것과 업무 중간중간 나누어 휴식을 취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 결과²⁾, 잠깐의 휴식(마이크로브레이크, microbreaks)이 업무 효율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스트레칭·멍하게 있기·낮잠과 같은 이완 휴식(relaxation)과 동료와의 수다를 도우미 되지만 굳것질이나 음료 섭취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지적 자원의 회복이 방해되어 쉬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30분을 걸었던 사람들과 1시간마다 5분씩 걸었던 사람들 중 하루 중 더 잘 쉬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룹은 후자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걷고 난 직후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으나 잠깐씩 걸었던 사람들은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일해야 할 것이 많은데 피곤함을 느낀다면 잠시만 효율적으로 쉬세요.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 즉 일 생각을 잠시 멈추어 줄 수 있는 활동이거나 휴식 활동 자체가 자신이 즐기는 활동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브레이크는 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1) Claudia Hammond (2019). 「잘 쉬는 기술」, 오수원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2020).
2) Kim, S. et al (2017). Micro-break activities at work to recover from daily work demand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8(1), 28~44.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건강증진센터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스트레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고민상담소'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쌍둥이 엄마에게



총무팀 김혜진 대리



아이들을 좋아한다. 코로나19로 못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친구보다 친구의 아이들이 더 보고 싶을 때가 있다. 가끔은 친구들의 카카오톡에 도배된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힐링을 하기도 한다. 우리 병원에서도 귀여운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어린 환아들을 볼 수 있다. 그 조그마한 손에 붕대를 감고 살짝 큰 환자복을 접어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너무 귀여워'라는 생각이 항상 앞서 살짝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이걸 오로지 내가 아직 결혼 전이고 관찰자 입장이어서 온통 귀엽다는 생각뿐일 수도 있다. 실제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육아는 희노애락의 결정체인데 내 자식이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그 중에서도 아직 순수하고 무해한 어린 아이들에게 왜 원인불명의 질병들을 주셨을까.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 보는 시간도 많아졌는데 우연히 '어카운턴트'라는 영화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제목 그대로 회계 관련 영화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 자폐 증상을 가진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나 병원에 맡겨지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으로 자폐 증상을 최대한 통제하고 수학적 재능을 살려 회계사로 성장한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범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생명을 위협받지만 아버지의 훈련 덕분에 CIA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며 살아남는다. 영화는 그들의 자금으로 어린시절 잠시 들린 자폐아 센터에 후원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며 마무리된다. 군 장교 출신인 주인공의 아버지는 현실에서 자폐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있었기에 병원과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직접 혹독한 훈련을 통해 주인공의 공격적인 성향을 절제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키웠다. 영화여서 가능한

일 일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병으로 단정짓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3년 전에 쌍둥이를 낳은 내 친구가 있다.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2달 일찍 나와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친구의 눈에는 본인 아이들이 조금 느리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발달장애 관련한 언어치료부터 재활치료까지 우리 병원을 포함해 4~5군데를 데리고 다니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주인공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외래 일정을 부탁할 법도 한데 한 번을 안하다 이번에 어렵게 얘기를 꺼낸 내 친구. 다행히 원무팀에서 도와주셔서 친구에게 많이 생색낼 수 있었다. 이번 진료에서 진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숫자에 능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주인공처럼 천재적인 회계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욕심을 내면 우리 병원에 후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렇게 글로나마 응원을 보내고 싶다. 넌 잘하고 있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어카운턴트
 감독 : 계빈 오코너
 배우 : 벤 애플렉(크리스찬 울프 역),
 안나 켈드릭(다나 커밍스 역) 외
 장르 : 드라마, 액션, 스릴러
 개봉 : 2016. 10. 13.



암병원 운영지원팀
김용우 사원입니다



※ 병원보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AMC 루키 코너를 진행합니다.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고 싶은 동료들의 추천 혹은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맡은 업무를 소개하면 암병원 운영지원팀에서 건강강좌, 위원회·간담회, 예산, 홍보 등 암병원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미국 「뉴스위크」 선정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병원 등 세계 유수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1지방으로 암병원 운영지원팀에 지원했는데 지금도 그 결정에 만족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신 암병원 식구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퇴근 후 일상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헬스와 러닝,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나 올림픽공원 등에서 주 2회 러닝을 하고 최근에는 헬스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등산이 유난히 재미있어서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운동을 쉬는 날에는 독서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하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소양을 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목표 민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의리가 있다', 업무 등 공적인 관계에서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다', '주어진 업무를 해낸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20대에는 개인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유쾌한 응원 뉴스로만 접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제가 되었을 때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 격려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날 김연애과 정용필 교수님의 회진이 있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은 거고, 아가튼한테도 괜찮은 겁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손으로 제스처까지 취하며 응원해주시는데 유쾌한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내일 퇴원이네요. 고생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먹약수들 건네시는데 교수님의 긍정 에너지에 제가 많이 안 아프고 퇴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 힘든 마음을 유쾌한 응원으로 달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진심 진심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대해주신 위장관외과 오성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작년 6월 위암 판정은 받은 아내를 치료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을 찾던 중 오성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부부를 보시고는 "젊으시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공감해주고 위로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며 앞의 진행상태, 여러 수술법, 예측되는 가능성 등도 너무나도 친절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수술 후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설명, 환자를 안심시키는 행동, 주말에도 예외 없이 수술부위를 직접 소독하시는 오교수님의 모습에 또 다시 감동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오성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 '감사 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이색카페에서 보내는 특별한시간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다양한 컨셉을 갖춘 카페에 가면 커피를 마시며 평소 하지 못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해변처럼 꾸며놓은 곳에선 바닷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카페 한 칸에 마련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일상 속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색 카페를 소개한다. <편집실>

식물원

카페 안이 초록색 식물로 가득하고 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한 피톤치드가 머리를 맑게 해준다. 테이블 사이로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 울창한 숲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을 느끼며 힐링을 하고 싶다면 식물원 컨셉의 카페를 추천한다.

- 그린보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금촌로 35-2
- 식물관 PH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24
- 문지리 535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3902-10
- 김포 글린공원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5번길 34



해변

바닷가를 연상케 하는 바닥과 대형 스크린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시원한 바다 영상이 마음을 탁 트이게 한다. 새하얀 모래가 깔려 있는 이색적인 풍경도 인상깊다. 푸른 바다를 그대로 담은 듯한 색감의 스무디를 마시며 카페 안의 바다를 느껴보자.

- 김포 수산공원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52
- 어반비치연남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5 3층
- 오션97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자동차

자동차 컨셉의 카페에 가면 평소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직접 볼 수 있다.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와 고가의 스포츠카를 전시해놓은 곳도 있고, 셀프세차장을 갖추고 있는 카페도 있다.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와 의류를 구경하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

- 더원클래식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44
- 피치스 도원 서울 성동구 연무장3길 9
- 마이캐러지 경기 하남시 산곡동로 31



자전거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컨셉으로 한 카페도 많이 생겨났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정비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구경할 수도 있다. 자전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더욱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바이크빈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42번길 8-4
- 제1보급소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11길 38 1층
- 라피아토 서울 강동구 천중로 8-1 1층

해외여행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기가 힘들어졌다. 이럴 땐 해외 여행지나 영화를 테마로 한 카페에 가보자. '해리포터'를 컨셉으로 한 카페나 사막을 재현해 놓은 카페에 가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사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4길 5
- 943 킹스크로스 서울 마포구 양화로16길 24
- 랑데자뷰 서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53
- 부다페스트 카페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1



드로잉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들이 있다. 종이, 물감, 팔레트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치유의 과정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21-1 B1
- 그림제작소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90 3층
- 피치그레이 서울 송파구 가락로21길 14-1
- 세컨드 스프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28



※ 자료 출처 : 네이버 지도, 네이버 블로그, 「에스콰이어」

나무야 나무야

대왕참나무

분류 참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학명 Quercus palustris munchh.
원산지 북아메리카



● 대왕참나무를 볼 수 있는 장소

대왕참나무는 단지 내 중앙 도로변과 교육연구관 후면에 심어져 있다. 참나무 종류 중 가장 크게 자라는데 최대 30m까지 자란다. 그런 까닭으로 이름에 대왕이 붙게 됐다. 줄기와 가지 사이에 핀처럼 잔가지가 튀어나와 있다는 이유로 '핀 오크(Pin oak)'라고도 불린다. 외형이 곧고 아름다우며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속성수로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나 공원에 많이 심어서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기도 하다.

잎은 어긋난 모양으로 잎 가장자리가 3~7군데 깊게 파여 있다. 잎 뒷면에는 광택이 나며 녹색에 미세하게 털이 있고 잎 앞면은 짙은 녹색을 띤다. 가을이 되면 새빨갈게 단풍이 들어 매우 아름답다. 대왕참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가을에 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 내내 나무에 붙어 있다가 봄에 떨어지는데 이는 외부의 추위로부터 겨울 꽃봉오리와 가지를 보호하려고 낙엽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해마다 온도, 햇빛 등의 환경에 따라 낙엽 상황이 달라진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상으로 대왕참나무 묘목을 받았는데 그 나무로 일장기를 가린 일화에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다. 그때 그 대왕참나무는 서울 중구 죽림동에 위치한 손기정 선수의 모교인 양정고등학교 교정에 심어져 있고 '월계관 나무'로 불리며, 현재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돼 있다. 꽃말은 '번영'이다.

※ 자료 제공 : 시설팀 함중덕 직원

※ 병원보는 '나무야 나무야'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공원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꽃, 풀을 소개합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전세계가 푹 빠지면서 K-푸드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케첩을 짭 뿌려 먹는 한국식 핫도그가 뉴욕에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한국식 핫도그의 올바른 명칭은 corn dog다. 꼬치에 꽂은 소시지를 옥수수 반죽으로 감싼 데다 모양이 옥수수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고로 hot dog는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운 것이니 구별해서 쓰자.

(한국식)핫도그

😊 corn dog



😊 hot dog



Let's Talk

- A New Yorkers have been waiting in long lines to get a bite of Korean corn dogs. 한국식 핫도그 맛보려고 뉴욕커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 B Wow, the K-pop culture has done it again with the street food. 한류가 길거리 푸드로 멋지게 또 한 번 했네.

기운이 없거나 피곤하면 링거 주사를 맞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외국 가서 Could I get a ringer? 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다. 링거는 링거액을 만든 약리학자의 이름이다. 링거, 정맥주사, 각종 미용 주사는 IV(IntraVenous)라고 통칭한다. 병원에서 맞는 '수액'은 IV drip이라고도 부른다.

링거(수액)

😞 ringer

😊 IV / IV drip

Let's Talk

- A I think the IV drip is too fast. 수액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 B Oh, I see. Let me adjust it for you. 네, 조절해 드릴게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착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병원보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중양내과 연재정 연구코디네이터

'사랑시·행복구·동행동 AMC'에 소개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당연하게 살고 있던 나의 삶이 더 감사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며 그때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네요.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우리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힘을 얻고 잘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내과간호팀 이수현 차장

표지에서 소개된 '뉴스위크 선정 분야별 최고 병원,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상위'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국내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파이팅!

심장병원간호팀 박영란 사원

'문화·생활정보-가을, 서울아경'에 소개된 8곳의 명소는 서울 토박이로 살면서도 일상생활이 바빠 여유로운 마음이 없던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은 소개된 곳 설명을 꼼꼼하게 정독한 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가족들과 꼭 답사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병원간호팀 김치호 주임

'마음건강노트-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법'이 감명 깊었습니다. 나의 상사와 잘 지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반문해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매번 갈등 해소 방법을 잘 소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과간호팀 박진성 사원

'특별기고'에서 소개된 박상원 간호사의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별의 틀을 벗어나 당당히 첫 단추를 끼운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남자 간호사로서 항상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입니다.

☑ 지난호 정답

제662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가을, 서울아경'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 운영지원팀 김용우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